

# 비전 드림(Vision-Dream)과 MVP 교육 —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김상래 | 삼육대학교 총장

지금 대학가, 그것도 사립대학의 분위기는 절절하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학 정책은 그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원감축과 대학 퇴출이다. 정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압박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고, 재정 능력이 없는 재단은 대학의 존치 여부를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 교육 정책에 대한 아쉬움

학령인구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과 대학 퇴출을 목표로 진행되는 교육 정책은 시대적 타당성을 지닌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되는 주요한 세 가지 사항이 있다.

### 1) 역사적 공헌에 대한 배려

이제 곧 대학지원 예정자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어진 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출산율 저하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학생 수 감소를 대비해야 할 바로 그 시점부터 오히려 대학이 늘어났다. 그때가 소위 '대학설립준칙주의'이 시행된 1996년이다. 이후 대학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4년제 대학만 해도 47개교가 늘어 156개교가 되었다. 거의 3분의 1이 늘어난 것이다. 물론 긴 역사를 가진 학교들이 대학으로 승격하여 건실한 대학들이 되어 대학 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부실대학도 생겼다.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들은 대개 준칙주의 이후에 갑자기 설립된 대학들이다. 지난 8월 12일 교육부는 마침내 '준칙주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즈음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것은 대학들의 역사적 공헌에 관한 것이다.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니 그 이전 일제 강점의 시기에도 교육보국의 의지로 캠퍼스를 지켜온 대학들의 공헌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학들은 대개 초창기 지도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대학들은 더욱 그러하다. 근일 진행되는 대학 평가에서는 이런 대학들의 역사적 공헌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

### 2) 규모에 대한 배려

아무리 돈이 만능인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여전히 '규모'에 대한 배려가 있다. 대기업이 전횡을 부리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중소기업청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대학 정책에 있어서도 '규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요 관심은 늘 '지역'과 '편제'이다. 즉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4년제이나 2-3년제이나가 이슈이다. 여기에 중요한 시각지대가 있다. 중·소규모 대학이다. 지역과 편제를 고려해도 결국 대규모 대학이 정책의 혜택을 선정한다.

특별히 수도권의 중·소규모 4년제 대학은 이중의 소외를 당한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고 전문대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대기업의 백화점만 있어서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다. 채래시장이 존재하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작지만 강한 대학'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건실한 교육적 중소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3) 인성교육 의지에 대한 배려

오늘날 지식과 정보를 향한 대학가의 무한경쟁은 거의 전쟁 수준이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소유



했느냐가 곧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그건 복의 수단도 되고 화의 수단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역시 사람의 변화이다. 모든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이것이 간과된 교육은 자칫 개인과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전공과정일 수 있다. 그렇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과 재정을 들여 우리의 존재 기반을 허무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지 모른다. 모든 대학들이 단거 평가를 위한 지표 관리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대학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성교육에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려면 굉장한 행정적 의지가 필요하다. 근본을 지키려는 이런 의지에 대해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하다.

#### 대학 경영의 핵심 가치: 비전 드림(Vision-Dream)

2012년 3월 나는 취임식에서 경영의 핵심 가치로 '비전 드림(Vision-Dream)'을 제시하였다. '비전'은 문자 그대로 꿈과 희망을 나타낸다. '드림'은 발음상 한국어 '드림'과 영어의 Dream이 중의적으로 나타나기를 의도하였다. 그래서 한국어로 읽으면 '비전을 드린다'이고 영어로 읽으며 '비전을 꿈꾸다'이다. 이런 모토를 정한 이유는 '비전 드림'이야

말로 삼육 교육 철학을 요약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절실한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전 드림'은 삼육대학교의 근본적인 견학 정신을 나타낸다. 그 정신에는 인간에 대한 희망이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악해도 여전히 존귀한 '신의 형상(Imago Dei)'이 있으며, 인간이 아무리 무능해도 여전히 적어도 '한 달란트'의 능력은 주어졌다는 비전이다. 지금은 절망의 시대이다. 비전이 없다. 가치를 부여할만한 것이 사라졌다고 한다. 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를 향해 우리 교육을 통해 비전을 드리기를 원한다.

'비전 드림'의 궁극적 목표는 (1) 100년이 넘는 역사를 살려, (2)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되어, 결국 (3) 3H 즉 정직하고(Honest), 건강하고(Healthy), 행복한(Happy) 인재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다. 취임한 이후 학위 수여식 때마다 "3H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는 말로 총장 훈화를 마무리하였다.

모든 교육은 '비전과 변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참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든 결국 자신을 넘어 세계로, 현실을 넘어 미래를 보게 해야 한다.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삼육 교육의 꿈이다. 나는 삼육대학교가 바로 그런 꿈을 가졌고 가르치는 교육공동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이곳에서 신뢰와 존중을 받았고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교육 성업의 모든 과제를 다음과 같은 카피로 제시하였다. '세계를 향한 Mission, 미래를 향한 Vision, 그것을 이룰 Passion.' 이 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합하여 그것을 'MVP 교육'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비전-드림'의 핵심가치로 'MVP 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삼육교육의 꿈이다. 2013년 상반기에 교육부와 한국대학평가원이 실시한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한 11개 대학 중 삼육대학교가 유일하게 54개 준거에서 단 하나의 '미흡'(weak)이나 '불충족'(fail) 없이 전 영역 '충족'(pass)의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이 그러한 꿈이 현실이 되어 가는 공적 과정으로 받아들여져 기쁨과 용기가 되었다. 특히 '비전 드림 MVP 교육 사회봉사 모범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진다.

삼육대학교 신학과, 동대학원 신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영국의 셰필드(Sheffield)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삼육대학교에서는 신학과장, 교목실장, 신학연구소장, 중앙도서관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이사, 삼육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구약의 역사와 고고학의 증거』, 『구약 난해구절 해설 81선』, 『구약의 역사서』, 『구약의 역사과 기별』, 『중고교 종교교과서 6종』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구약 히브리 텍스트에 대한 문학적 해석', '중간기 시대의 유대문학' 등이다.